

“타국의 전장 기록하며 사무친 그리움 견뎌셨죠”

베트남 참전 경험 담은 진중기록문 발간 함평 출신 서덕길 씨

복무 사진·위문 편지·휴대용 근가집 등 희귀 자료 수록 당시 쓴 시 게재된 신문 눈길...귀국 후 농업지도사로 은퇴

호국의 달 6월을 맞아 베트남 참전 용사가 당시의 기억과 기록을 담은 진중문을 펴내 화제다. 주인공은 함평 출신 서덕길(77)씨.

참전용사 서덕길 씨는 최근 1967년부터 1968년까지 1년간 베트남 참전의 경험을 묶은 ‘서병장 진중기록문’을 발간했다.

육군기록정보관리단에서 출간한 이번 진중기록문은 당시 복무 사진, 위문편지, 휴대용 근가집 등 현재로서는 찾아보기 힘든 희귀 자료들을 담고 있어 사료적 가치가 크다. 당초 진중기록문은 2018년 육군기록정보관리단에 의해 초판이 발행됐으며 이번은 2판 재 발간했다.

“엄혹한 시대 국가의 명령에 따라 베트남에 참전했던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당시 사상이나 견해 등 여러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전장에 파병했다고 들었어요.”

1965년 11월 육군 28사단에 입대한 서 씨는 1967년 6월 맹호부대로 배속돼 베트남으로 떠났다. 그곳에서 약 1년여간 정보통신병으로 근무를 하고, 이후 고국으로 돌아와 육군 병장으로 전역했다. 서 씨는 “평소 메모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베트남

현지에 있을 때도 수시로 기록을 했다”며 “당시의 메모나 사진을 볼 때면 힘든 시간을 잘 버텼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의 부대가 진주한 곳은 커논항 부근 푸캇이라는 지역이다. 진중기록문에는 모두 40여 장의 사진을 포함해 일기, 시, 수필 등이 수록돼 있다. 특히 그가 쓴 시 ‘정글이 ‘자유편’(1968년 8월호)에 게재된 신문 복사본 등도 수록돼 있어 눈길을 끈다.

사진만 훑어봐도 당대의 역사가 가늠된다. 베트남 민가 사진을 포함해 포대원과 함께한 시간, 베트남 마을, 대민 봉사 활동, 전통의상을 입은 여인들 모습이 인상적이다.

그는 베트남에 있을 때 틈틈이 시를 쓰고 신문에 투고를 했다. 스스로를 다잡는, 내면의 근력을 키우는 방편이었다. 서씨는 “작전을 수행하며 위험한 순간도 적지 않게 맞닥뜨리곤 했다”며 “그때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가족을 생각하며 어려움을 극복했다”며 웃었다.

그러면서 그는 “한때는 말라리아에 걸려 위험한 순간도 있었지만 전우신문을 보면서 위로를 받곤

했다”고 덧붙였다.

1967년 11월 어느 날 자신의 심경을 글로 표현한 수필은 잔잔한 울림을 준다. 전장에서 의 상황, 인간으로서 갖는 심정인 고통 등은 파병 군인이 아니고서는 느낄 수 없는 감정이다.

“마음은 한결같이 고국으로/ 귀국의 영광은 언제 오려는지/ 텅 빈 전선의 밤/ 너무나 냉혹하기에/ 야자수 그늘에서 따가운 햇살을 피하며/ 고국의 소식을 기다리는/ 안타까움을 안은 채/ 기다림이란 어휘가 없었던들/ 24시간의 긴 시간은/ 무의미해졌으리라”(1967년 11월 어느 날에 쓴 ‘무사한 몸으로 귀국하길’)

이후 귀국한 서 씨는 농업지도사로 제2의 인생을 살게 된다. 1969년 함평군 농촌지도소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1999년 정년퇴직을 했다. “군복무 경험이 자연스럽게 공직생활 하는데 도움을 준 것 같다”는 말에서, 남다른 책임의식이 느껴진다. 농정 개선을 위한 제안 등 공로가 인정돼 국무총리 유공표창을 비롯해 지자체장 표창도 수차례 받았다.

“누군가는 베트남 파병에 대해 박정희가 용병으로 써먹은 거라고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저의 견해로는 시대의 격랑에 휩쓸린 운명이나 다를까 생각합니다. 베트남과의 교류가 지금보다 다방면으로 확대돼 더 미래지향적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6기 원우들, 골프로 다진 우정



7일 함평엘리제CC에서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제6기 회장배 골프대회(회장 위웅)가 열렸다. 대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원우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제6기 원우회 제공>

‘전남대 후광학술상’ 민중사학자 故 이이화 선생

비주류 지식인 학문적 재평가 시도 등 ‘이이화 역사학’ 개척

전남대학교가 제정한 후광학술상 제13대 수상자로 고(故) 이이화 전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이 선정됐다.

후광학술상 선정위원회(위원장 정일준 고려대교수)는 “평소 교육과 연구에 정진하면서 민주, 평화, 인권, 정의와 관련된 학술적 업적이 우수하고, 실천적 공로가 지대한 고 이이화 선생을 제13대 후광학술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8일 오후 5시에 열리는 제68주년 전남대 개교기념식에서 진행된다.

이이화 선생(1937~2020)은 재야사학자로서 민중사학을 개척하고 역사 대중화를 이끌었다. 전쟁과 극심한 가난으로 정규교육과정을 거치지 못

했고, 학계에서 인정받는 학위도 없었으나 뜨거운 열정과 의지로 독자적인 학문의 길을 걸어 ‘이이화 역사학’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타계했다.

그는 1970년대부터 허균 등 기존 역사가 주목하지 않던 비주류 지식인들에 대한 학문적 재평가를 시도했고, 민중의 삶과 저항에 대한 역사적 접근에 나서서 등 민중의 역사학자로서, 대중적이지만 학문적 엄밀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기존 학제와 논문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역사사술로 정평이 나 있다.

1980년대부터 40여년을 실천하는 역사학자로 활동했고, 1988년 역사문제연구소를 설립해 진보적 역사연구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다. ‘역사비평’ 주간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서원대 석좌교수 등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 ‘한국사 이야기’(22권)를 비롯해 ‘허균의 생각’, ‘한국의 파벌’, ‘역사와 민중’ 등이 있고, 그가 동학농민전쟁 100주년을 즈음해 펴낸 수많은 논문과 저서, 특히 그가 주도해 편찬한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30권)는 국제적 연구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후광학술상’은 전남대가 후광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와 인권신장 및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기 위해 지난 2006년 ‘전남대 민주평화인권학술상’이란 이름으로 제정한 상으로, 민주, 평화, 인권 등의 분야에 기여하거나 관련 학술 업적이 우수한 국내외 학자나 단체에게 주어진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무악여성라이온스클럽 김진주 신임 회장 취임

광주무악여성라이온스클럽 신임 회장에 김진주(사진) 연한정식 대표가 취임했다. 김진주 대표는 지난 4일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1지구광주 무악여성라이온스클럽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1년이다.

김 신임 회장은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1지구 라이온스클럽 회장단 홍보처장도 맡아 회장직과 함께 지역 라이온스클럽의 활동을 대·내외에 알리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김진주 회장은 “함께하는 봉사, 하나되는 라이온스”를 슬로건으로 직접 찾아가고 실행하는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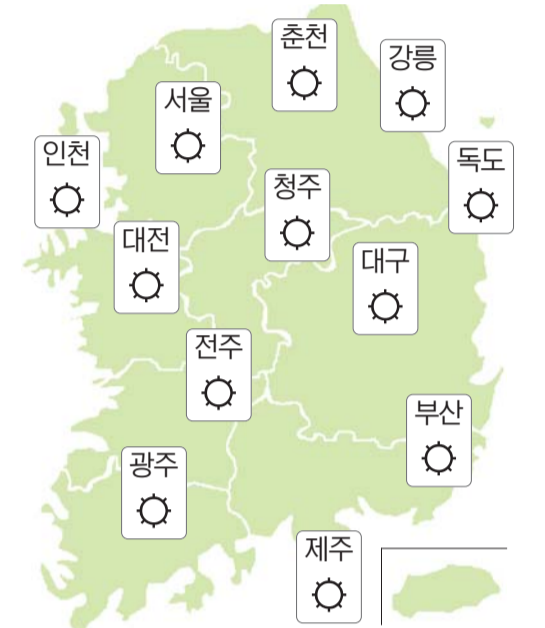
해돋이	05:18	달뜨기	22:19
해지기	19:46	달지기	07:18

햇빛 짹짹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광주	맑음	19/33	보성	맑음	15/28
목포	맑음	18/30	순천	맑음	18/31
여수	맑음	19/26	영광	맑음	17/31
나주	맑음	16/32	진도	맑음	16/28
완도	맑음	18/27	전주	맑음	19/32
구례	맑음	17/32	군산	맑음	18/30
강진	맑음	16/29	남원	맑음	18/32
해남	맑음	15/29	흑산도	맑음	16/24
장성	맑음	17/32			

◇ 전국 날씨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 (m)	파고 (m)	파고 (m)	파고 (m)
서해남부	앞바다	0.5	0.5	
	면바다(북)	0.5~1.0	0.5~1.0	
남해서부	앞바다	0.5	0.5	
	면바다(서)	0.5~1.0	0.5~1.5	
	면바다(동)	0.5~1.5	0.5~1.5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9:10 21:07	04:03 15:55
여수	04:43 16:34	10:37 23:21

◇ 생활지수

식중독	자외선	미세먼지
주의	매우 높음	보통

◇ 주간 날씨

9(화)	10(수)	11(목)
19/33	21/30	21/31
12(금)	13(토)	14(일)
21/29	21/29	21/28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1 FAX 062-222-4938, 222-4918

일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프로그램 신청=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알선, 취업교통비 지원 등 취업지원 및 긴급원호, 공,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청소년전화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송센터, 노인학대 신고=언제든 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 우울, 불안, 스트레스, 치매, 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

지장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임관용 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지역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월·금·일 오후 5~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약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홀더’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요일 10시~오후 5시 061-285-1161.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 결손가정아동, 경제적 사정, 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이 있는 3세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222-1095,1096.

모집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모집=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남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후문 80미터 010-4622-7838.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 모집=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061-320-7024.

▲시니어플레이너지지도사(자격반) 모집=사·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010-5522-9700.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스마트폰 활용가능자 수시모집, 5~6명이면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블로그창업동호회 062-

511-0030.

▲인생이모작 카운슬러 모집=인생2막 생애 재설계, 은퇴 신중년 상담에 관심 있거나 교육경험이 있는 48~58세 남아 모집, 실버체조, 치매예방 놀이, 노후생활 관련 강사 등, 한국50+ 희망발전소 010-2626-5018.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모집=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본부 062-515-7521.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기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전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